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말씀: 욥26-27장, 롬15:4, 지혜 문학,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욥과 친구들의 논쟁, 3차 엘리바스와 욥(22-24장), 그들의 주장: 너는 죄인, 우리는 의인. 번영신학

그들: 사악한 자는 반드시 속히 멸절된다(20:5,7 등). 세상은 공평하다. 욥은 No!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된다.

사람의 죄로 인해 완전한 사회 정의 실현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24:23).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은 3차 논쟁의 마지막, 빌닷의 등장, 25장, 6절, 가장 짧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소발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빌닷의 논쟁(25)

하나님의 권능(1-3), 하나님의 정의(4-6), 특히 4절은 엘리바스의 말(4:17; 15;14-16)

틀린 말이 아니다(2-3).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옳지 않다고 하신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들은 자기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발설함, 혹시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거룩함에서 나옴, 아무도 그분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4). 맞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수태되면서부터 죄인(시51:5)

중동 지방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유난히 밝다.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5).

그러므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6). 물론 여기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욥

결론: 그럼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부인, 내 부족함에도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문제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수여 가능, 누가 구원받겠는가? 하나님은 이들이 틀렸다고 하신다.

이런 자들이 종교인,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여기에 비례해서 은혜

욥의 대답(26)

1. 먼저 빌닷을 책망함(1-4), 2-3 설명,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도왔느냐?

   중요한 절(4). 네가 말을 할 때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네 영

   네 말은 내게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였다. 마귀의 영이다!! 혹은 빌닷의 영이다!!

   조심할 점(3):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된다. 이단들의 특징

   욥의 결론; 너희의 신학 체계는 구원하는 지혜를 주지 않는다. <u>8명이 한 말의 결론</u>

2.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5-14).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5-6), 우주 공간(7-11), 마귀(12-14)

   a. 죽은 자들의 세상도 주님이 통치한다(5-6). 지옥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시139:7-8).

   b. 우주 공간과 지구와 별들(7),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절대적인 곳(사14:13), 1.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신다(우주 팽창). 2. 땅을 허공에 매단다. 14-15세기까지 사람들은 땅과 별 등이 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이해함. 조그만 물체는 달아야 가능, 이 큰 물체들은 공중에 떠 있음. 두부 속의 구슬처럼 박혀 있음. 우주 공간은 무지무지 단단한 스페이스, 밀도가 대단함, ether, firmament, 단단한 것, 지구는 우주의 중심, 성경은 천동설, 가능함, 땅은 원이다(사40:22)

   c. 물과 구름, 비의 형성(8-10)

   d. 바다(12), 그 안의 교만한 자 마귀, 구부러진 뱀(13), 리워야단(사27:1)

   e. 하늘의 기둥들을 떨게 하시며(11) 마귀까지 제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

3. 욥의 결론(14):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 자연계의 일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스티브 호킹(2018년 3월 14일, 76세 사망, 평생 우주 연구, 하나님 부정, 이제 자신이 틀렸음을 알 것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다. 리처드 도킨스도 마찬가지, 이단 괴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무한하시므로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너희 세 명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27):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조그만 신학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욥을 대적함

아이를 괴롭히는 악당, 아이의 큰형이 와서 그를 붙잡은 뒤 혼을 내줌. 이런 모습이 27장에 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한 자: 성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 앞에서 그를

의인으로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위험함 일이다.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 마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인을 정죄하지 말라.
욥처럼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자들
예수님의 경우 아무 잘못이 없었으나 그들이 그분을 죽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심(행2:23-24).
바로 이런 일이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아니면 최후에
욥기 4장부터 26장까지 8번에 걸쳐 이들이 마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도 욥을 비난하고 고소함
그래서 욥은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진리를 가르치려 한다(11, 12절).

1.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의인임을 기뻐하고 자랑한다(1-6).
그는 먼저 맹세한다(2). 비록 그분이 정당하지 않게 심판하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평생토록 결코 사악하거나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3). 우리 모두의 결심
그의 자랑과 기쁨: a.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5). 너희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도 너희가
틀렸다. b. 나는 순전하다. 온전하다(5). integrity, 추천서
c.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6). d. 나를 꾸지지 않으리라(6). 나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다.
e. 내 행위에 부족함이 있어도 마귀와 함께 나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교만의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다(히12:1-2)
2.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7-10).
이것은 욥의 소원, 동시에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7-10 설명
우리가 무고하게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자식들이 악을 행합니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딤후2:23-26 첨가
3. 성도는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11-23).
a. 내가 선생이 되어 가르쳐주겠다(11-12).
b. 경고하는 자의 말(13-23).
c. 하나님의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13)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잘되는 것 같아도 영원의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개인적인 불행(14-15), 재물(16-18), 결국 죽는다(19-21),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
(22-23).
4. 결론: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마귀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그는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5. 물론 이것은 욥을 통해 세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결국 이 셋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욥42장)

무엇을 배우는가?

1.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름, 마귀 편에 서 있음, 우리도 조심
2.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과 고난, 인내 후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
3.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하며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4. 욥이 이들을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용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5. 지금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안보, 국경 오픈(이슬람 세력), 동성애, 사회주의/공산주의
일보 직전, 마귀의 편에 서서 나라를 망치려 하는 자들, 성도들을 근심에 이르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또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구하기 위해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해야
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